

MOVIE

MOVE
BY STORY
VOL. 08

20130310

당신을 흥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ilok drusst1

INDEX

-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여행 친구 - 천국을 무대에 담아온 남자, 연극배우 김수로
-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Dior Sa 사동렬
- MUSE** 돈천지 Money Paradise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8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3월 1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예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민지홍
사진촬영 선민정 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THANKSBOOKS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캐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한 달에 세 번,
귀로 들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지 테마



SICILIA ISLAND, ITALY

8회 with 김수로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최극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BORMES-LES- MIMOSAS

7회 with 이영미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볼-레-미모자 마을

손미나의 여행 사전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SICILIA ISLAND, ITALY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와 닿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바다의 짠 내음이 코끝을 스치며
가라 앉은 세포들이 깨어나듯 몸 안의 감각이 눈을 뜬다.
보이는 풍경 모두가 그저 느슨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그때, 이곳은 나만의 천국이다.

신앙을 떠나 과거·현재·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행복과 '천국'을 꿈꾼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 싶다.

"진정 당신이 그리는 당신만의 천국은 어디인가? 혹은 무엇인가?"

어쩌면 당신이 꿈꾸는 시공간의 천국을 시칠리아에서 찾을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시칠리아는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손미나의 여행사전〉에서 소개하는 시칠리아의 5가지 매력을 통해 나만의 천국을 찾아보자.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SICILIA ISLAND, ITALY

이탈리아 사칠리아 섬

Sicilia Island, Italy

- A. Taormina
- B. Agrigento
- C. Palazzo Adriano
- D. Palermo
- E. Trapani

A 타오르미나

B 아그리젠토

C 팔라조 아드리아노

D 팔레르모

E 트라파니

지중해



시칠리아의 매력포인트 1

시칠리아의 '민낯', 팔레르모 Palermo

시칠리아 사람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 팔레르모 Palermo. 어디를 가든 시장을 꼭 둘러보아야 여행의 완성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팔레르모 재래시장을 놓쳐선 안 된다. 팔레르모의 재래시장인 부치리아 시장, 델 카포 시장, 발라로 시장은 좁은 골목이 차고 넘치도록 각종 과일, 해산물 등 없는 것이 없다. 한편 이런 생생한 민낯의 재래시장과 반대로 팔레르모의 중심거리 '비아 로마'는 자라(ZARA), H&M 등 유명 브랜드숍이 있는 패션의 거리다. 재래시장 골목 풍경을 느꼈다면 이곳에서는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천국의 섬 시칠리아의 일상을 느끼고 싶다면, 팔레르모에서 와글와글한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보자.

Storyteller's 팔레르모: 시칠리아의 생생한 '민낯'을 볼 수 있는 곳. 관대한 팔레르모 사람들은 당신의 민낯도 대환영!





시칠리아의 매력포인트 2

유럽의 최고급 소금 생산지, 트라파니 Trapani

트라파니Trapani는 유럽에서 최고급 소금을 생산하는 광대한 염전을 자랑한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질 좋은 소금은 오직 트라파니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따지고 보면, 파스타를 비롯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요리의 근원이 이 트라파니 소금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고급 소금을 맛봤다면, 이제 시각을 자극시킬 차례다. 팔레르모는 아그리젠토에서 볼 수 있는 바로크풍의 건물과 그리스의 흔적이 느껴지는 곳과 달리, 이곳은 아주 독특한 풍경으로 가득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염전과 그 위에 서 있는 붉은 기와지붕의 풍차를 보고 있노라면 로맨틱한 천국에 도달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Storyteller's 트라파니: '빛과 소금'에서 소금은 충분히 준비됨, '빛'은 당신만의 이야기로 채우길.

시칠리아의 매력포인트 3

작은 천국의 땅, 타오르미나 Taormina

괴테는 그의 '이탈리아 기행'에서 타오르미나 Taormina를 "작은 천국의 땅"이라고 칭했다. 또한 230여 년 전 프랑스작가 모파상은 "타오르미나에 있는 모든 것은 마치 인간의 눈과 정신 그리고 상상력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인다."고 적었다. 대문호들의 칭송을 받은 타오르미니나는 여행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곳임이 틀림없다. 가슴이 탁 트이는 이오니아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일년 중 무려 8개월을 수영,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 수상 스포츠와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지중해성 기후를 자랑하기에, 몇 달이고 이곳에서 휴가를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타오르미니나에서 인간의 문명과 자연의 하모니를 감상해보자.

Storyteller's 타오르미니나: 타오르미니나, 손미니나. '미니'라는 단어에는 '끌어당김의 힘'이 존재하는 것일까?





시칠리아의 매력포인트 4

‘신전의 계곡 Valle dei Templi’, 아그리젠토 Agrigento

아프리카를 마주하는 시칠리아 섬의 남부 끝자락, 지중해를 향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 아그리젠토. 그리스 본토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헬레니즘 유적지가 있는 아그리젠토의 대표 브랜드는 ‘신전의 계곡’이다. 기원전 5세기 경 시칠리아가 그리스 지배하에 있던 시절, 계곡 곳곳에 고대 그리스 신전 20여 개를 세웠다. 헤라 신전, 주피터 신전 등 20여 개의 신전 중 기원전 5세기에 건축된 콘코르디아Concordia 신전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콘코르디아는 기원전 400년 대에 세워졌으며 우아하면서도 장엄한 멋이 살아 있다. 이곳 유적들은 밤 11시까지 조명을 설치해 야밤에도 관광이 가능하고, 야경 풍광이 낮 못지 않게 화려하다. 25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해 고대 그리스인의 숨결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

Storyteller's 아그리젠토: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다. 발이 아닌 눈을 담그시길.

시칠리아의 매력포인트 5

토토의 고향, 팔라조 아드리아노 Palazzo Adriano

팔레르모에서 차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산골마을 팔라조 아드리아노 Palazzo Adriano. 이곳은 1989년에 개봉한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시네마 천국>이 개봉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어린 토토는 벌써 청년의 모습으로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토토 역을 맡았던 주인공 카스시오는 실제 이 마을 출신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네마 천국>의 향수를 그리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화려하고 웅장함은 없지만 인생에 대해 사색해 볼 수 있는 팔라조 아드리아노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Storyteller's 팔라조 아드리아노: <시네마 천국> 중 '병사와 공주' 이야기. 병사는 왜 99일이 되는 날 떠났을까? 정답은 없다.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정답이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로 나온 팔라조 아드리아노 마을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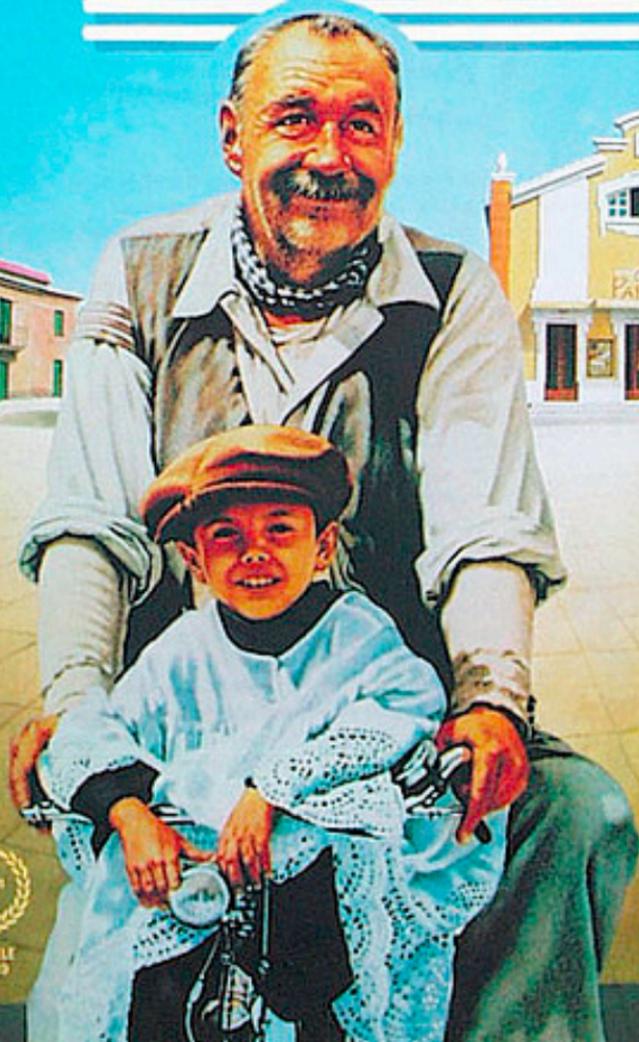


PHILIPPE NOIRET

JACQUES PERRIN

지중해가 보이는 봉-레-미모자 마을

Cinema PARADISO



ANTONELLA ATTU

ENZO CANNVALE ISA DANIELI

LEO MARCO PURELLA LEOPOLDO
GULLOTA LEONARDI MAGGIO TRIESTE

und SALVATORE CASCIO 6897010

LES FILMS ARIANE (Paris)

CRYSTALFILM (Paris) / FFI FILM PRODUCTION

SAUTER, Associate Producer, FORUM PRODUCE, S.A.

Produced and Directed by PHILIPPE NOIRET

Produced with GIUSEPPE TOSCANI

Music by ENnio MORICONE

Edited by GIUSEPPE VILÀ

Sélectionné
du Jury

FILMFESTSPIELE
CANNES 1989

여행 친구

천국을 무대에 담은 남자 연극배우 김수로

스토리텔러 김예니 — nabi@bombaram.net

몸 속에 발전기 모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무한 긍정 에너지를 뿜어내는 남자. 예능, 영화, 드라마, 연극 무대를 종합무진하며 팔딱팔딱 튀어 오르는 그 에너지의 꼭지점이 급기야 손여사까지 도달했다. <손미나 여행사전>의 여덟 번째 여행 친구는 함께 있으면 여행 내내 웃느라 정신 없을 것 같아 꼭 한번은 함께 떠나고 싶은 유쾌한 여행 친구 김수로 씨다. 짧지만 강렬했던 천국, 김수로가 들려주는 시칠리아 이야기의 문을 두드려 보자.

Q. 시칠리아를 꼭 가야만 했던 이유, 공연 중인 연극은 어떤 내용인가?

<유럽 블로그>라는 연극의 제작과 연기에 참여하고 있다. 애초에 이 연극은 기획 단계에서 음악, 영상, 연극이 어우러진 아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길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여행'이었다. 막연히 새로운 연극의 첫 번째 여행지가 유럽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예술과 여행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다. 손미나 씨가 추천해준 여행지를 비롯해 많은 도시를 답사하면서 최종 결정된 곳이 바로 시칠리아의 팔라조 아드리아노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 연극의 결말과 자세한 내용은 5월 31일까지 해화동예 오셔서 직접 관람하시길!

Q. 팔라조 아드리아노는 어땠나?

로마에서 14시간 야간열차를 타고 갔다. 개인적으로 야간열차를 좋아하고 젊은 여행자들에게 추천한다. 괜히 비행기로 일찍 도착해 항공료, 숙박료를 이중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씻기도, 잠자기도 다소 불편하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차창 밖 밤하늘에 기억을 떠올려보면서 얻게 되는 추억과 낭만이 더 크다. 나는 야간열차를 타면 2시간 이상 잠들지 않는다. 창 밖 풍경 중 단 한 커트도 놓치고 싶지 않아 끊임없이 바라본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광장과 마을이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다.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고 심심하기 마련인데 이곳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자체가 천국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첫 감흥은 '아! 거저 건졌다!'였다. 주세페 감독도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뒤지고 또 뒤져서 발견한 곳이 이곳 아니었겠는가? 도우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 마을은 정말 천국 그 자체였다.



Q.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시네마 천국)의 배경으로 나오는 호텔에 묵었는데 어머니, 형, 동생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호텔 주인이 자기 친구가 토도로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토도가 이 마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토토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친형을 만났다. 토토의 친형이 너무 미안하다며, 다음에 당신들이 오면 토토는 이 마을에 없을 거라며, 내가 없애버릴 거라고 화를 내기에 우리는 되려 괜찮다고 그를 달랬다. 연극 속 영상에 토토의 현재 모습을 담고 싶어 끝까지 기다렸는데 아쉽긴 했다.

머무는 동안 낮은 언덕에 간간히 나무들이 있는 이곳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칠 것 같았다. 날씨도 비현실적으로 좋다. 음식은 맛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토토도 있고……. 축복받은 땅이자, 완벽한 곳이다. 자기 전에 하늘을 보면 눈 바로 미터 앞에 별들이 함박 웃음을 짓는다. 말을 걸러다가 이탈리아 별이라 "차우" 정도만 해줬는데, 짧았지만 이 곳에서 이 모든 것들과 교류한 느낌은 평생을 갈 것 같다.

Q. 김수로에게 여행이란?

여행은 돈보다 시간이 많아야 한다. 여행에 관한 말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여행이란 자신의 은밀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란 거다. 벗어나거나, 멈춰 선다거나,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무언가가 여행이라면 여행이 아닌 현실은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 현실과 일상의 연장선에서 놓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 더욱 완전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상에서도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 여행은 짧은 길든 그곳에서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을 여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품격있는 연극배우 김수로가 천국에서 만난 더 많은 이야기는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Dior Sa 사동렬 이문 대신 **인연**을 남기고 조건 없는 **천국**을 만나다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그의 이름은 사동렬. 닉네임은 Dior Sa. 프랑스에서 8년을 살았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파리에 간다. 그의 페이스북 대문에는 “고마워, 파리(Merci PARIS)”라는 문구가 문패처럼 선명하게 걸려 있다. 그는 파리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다. 이제는 홍콩처럼 변해버린 고향, 부산 해운대보다 파리가 더 그림자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만 같은 도시! 파리는 그에게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의 닉네임 Dior에는 프랑스의 생활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다가 빠르게 발음하면 친한 친구들이 편하게 부르는 ‘렐’과 비슷하고 ‘동렬’의 이니셜인 D.R.도 되니 여러 모로 괜찮은 이름이다.

그는 일러스트 만화 작가 신준익과 의기투합해 재즈 뮤지션들의 콘서트 전시도 열고, 소소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불어도 가르친다. 주말이면 수영과 달리기에도 열중하고, 쇼콜라티에 김명하와 푸드 스타일리스트 윤버들과 함께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 요리도 한다. 파리에서 인연을 맺은 상송 가수 시나(Sina)와 미션 레나타의 음반 제작도 준비하고 있고, 김명하와 함께 타투 스토리 전시도 열 계획이다. 재능 있고 겸손한 재봉틀 아티스트 정민기와 함께할 재봉틀 드로잉 패션쇼는 그가 가장 기대하는 프로젝트다.

이쯤 되면 다시 궁금해진다. 회사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 그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그를 몇 차례 만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생긴다. 지난 번엔 요리사였는데, 이번엔 큐레이터? 공연 기획자? 음반 제작자? 파티 플래너? 불어 강사? 작가? 운동선수?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죠? 그럴 때마다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 백수예요.”

흥미진진한 일들을 끊임 없이 벌이고,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멋지게 성공시키면서도 그에게겐 자만심이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디서 도를 닦으셨나? 이해타산은 그의 취향이 아니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도모하고 소통을 즐기다 보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고,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의



인생에서 모든 의미 있는 변화와 창조들 순간들 역시 이런 식으로 우연찮게 찾아왔다. 처음 캐나다에 간 것도, 브랜드 할머니 집에서 리옹 출신 요리사 친구를 알게되고, 한국 요리가 궁금하다는 그 친구의 한 마디에 요리를 하게 된 것도, 그저 축구 선수 지단의 나라일 뿐이었던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것도, 프랑스에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도, 이름도 몰랐던 합정에 살면서 흥대 토박이 포스를 풍기며 이런 저런 일을 벌이는 것도 다 '우연'이자 '인연' 덕분이었다. 그는 최인호의 장편 소설 <상도>에서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구절을 좋아한다. 이문이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과 조건 없이 나누며 즐겁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천국'이다.

그의 본업은 사실 사회학자다. 자원활동으로 참여했던 '부산 외국인 인권을 위한 모임'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이민 정책'으로 석사를 받았고, 우연히 참가했던 '남미 축구 역사의 폭력'이라는 작은 컨퍼런스에서 스포츠 홀리거니즘 전문가인 지도교수를 만나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게 적을 두고 스포츠사회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십여 년 전 들뢰즈의 '노마디즘'을 우리 나라에 소개한 이진경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까지 매번 올라왔다는 그는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체의 방식'인 '노마디즘'을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다. 티 내지 않는 그의 잔잔한 열정과 성실함이 든든하게 느껴지면서 앞으로 그가 할 일들에 믿음이 생긴다.

Dior Sa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주제어

1.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한적한 홍대에서 운동하기

가장 트렌디한 동네일수록 사람도, 차도 모두 떠난 조용한 시간이 낯설고 매력적이다. 마치 혼자만 알고 사랑하는 비밀처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의 홍대는 사뭇 다른 얼굴이다. 한참을 걸어도 쓰레기를 치우는 분 외에는 만날 수 없다. 토요일 아침에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자유수업을 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홍대 인근을 달린다. 호젓한 운동시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2. 상수역 근처 '푸른별'에서 노래하기

상수역 근처에 10명 정도가 겨우 들어갈 만한 5평짜리 라이브 카페, 푸른별을 좋아한다. 뽀뽀머리를 한 주인이 안치환의 사인이 담긴 기타로 90년대 포크송들을 연주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한다.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가도 좋아하고, 부산 친구들과 함께 가면 동문화 분위기가 난다. 대학시절 공강 시간에 과방에서 기타 들고 노래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위기다.

3. 지금 막 사랑이 시작될 때, 영화 <비기너스> 보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의 혼란스러운 설렘이 섬세하게 표현된 영화 비기너스(Beginners)를 좋아한다. 특히 이완 맥그리거와 함께 출연한 프랑스의 촉망 받는 여배우 멜라니 로랑 Melanie Laurent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프랑스 여성의 생활에서 묻어나는 대담하고 자유롭고 섬세한 몸짓이 정말 매력적이다.

4. 싱어송라이터 정란의 음반 <노마디즘 들기>

정란은 친하기도 하고 아끼는 뮤지션이다. 2011년 <제8회 한국대중음악상-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 수상작의 보컬리스트인 만큼 노래 실력과 표현력이 뛰어나고, 스스로 작사 작곡은 물론 음반 디자인까지 해내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첫 정규 앨범, 노마디즘(NOMADISM)은 스스로의 음악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고 재즈, 라틴, 탱고, 보사노바, 팝 등을 아우르며 그녀만의 색깔을 창조해냈다.

5. 모든 인연의 시작점이자 접합점인 카페 스톡홀름

당신이 발전소 가는 길, 이리카페 건너 편에 위치한 카페 스톡홀름은 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다. 주인부터 손님까지 한 식구처럼 파리의 기억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곳에서 많은 인연이 시작되었고, 예기치 않은 조합으로 접합되고 또 연결되었다. 편안하면서도 견고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곳, 카페 스톡홀름은 그런 곳이다.



MUSE

돈천지 Money Paradise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am.net

천국 같은 삶이란 무엇일까.
사는 동안 돈과 명예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대부분 생각하는 천국 같은 삶이겠으나
그 중에 최고는 (아마도) 돈이리라.

이 말에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당신이라면
이순간 만큼은 당당하게, 대.농.고. 돈 이야기에 빠져보자.

대만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바로 옆에는 스토리하우스라는 아담하고 예쁜 건물이 있다. 주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와 스토리에 대해 전시를 하는 곳이다. 2012년 6월, 우연히 들른 이곳에서 마침 돈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세계의 돈을 모아놓은, 그야말로 돈천지(Money Paradise)였다. 상상해보라. 온 벽면에 돈으로 도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화폐 중에서도 시시껄렁한 동전 따위는 과감히 생략하고 오직 지폐 전시에만 집중되었는데 아이슬란드 공화국, 홍콩, 스위스, 뉴질랜드, 쿡 제도 등 Top Ten Most Beautiful Banknotes가 제일 먼저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왕족, 노벨상수상자, 역대 대통령, 기타 위인 등 사람이 나오는 지폐, 동식물이 주인공인 지폐, (그 중 압권은 2008년 국제은행권협회에서 선정한 사모아 20탈라 지폐다.) 폭포, 산, 분화구 등 자연물을 그린 지폐, 건축물 지폐 등 다양한 지폐 테마전 역시 흥미로웠다. (아! 다 보여드리지 못함이 정말 아쉽다!)

2층에 올라가자 한국에서도 이제는 찾기 보기 어려운 오백원 지폐도 있었다. 그러나 오백원을 만난 기쁨도 잠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끝판왕 지폐



도저히 아까워서 쓸 수도 없을 것 같은 강렬한 옐로우 배경색과 마누미아 새의 모습이 인상적인 사모아 20탈라권.



대만 타이베이 스토리하우스(타이베이구서관)

<http://www.storyhouse.com.tw>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 광장 앞에 위치

개방시간 10:00~6: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 TWD 50 (한화 약 1900원)

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짐바브웨 달러다.

공무원 월급이 22억 짐바브웨 달러, 버스 요금이 5백만 짐바브웨 달러인 것도 경악할 일인데 거듭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급기야 2008년에 1천 억으로는 겨란 3개 밖에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짐바브웨 정부는 100조짜리 지폐까지 발행하는 패기를 보였다. 그러나 발행 17일만에 결국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현재는 미국 달러(USD)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화(ZAR)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짐바브웨 지폐. 눈으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0'의 행진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씁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부와 명예와 건강 중 (오늘만큼은) 으뜸으로 치는 돈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은 지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돈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만 진짜 돈천지에 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위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Tip
이런 지폐들이 전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살 수 있다는 사실!
행운의 2달러를 포함해 짐바브웨 100조 지폐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누구나 돈천지를 쉽게 즐길 수 있다.



© flickr 10e188

이야기나무 책 소개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공개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
영성가들과 독자들이 극찬한 이야기 치유 실천 가이드